

일제강점기 한국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정 해 성(Hae-Sung Jung)**

여 지 숙(Ji-Suk Yeo)***

< 목 차 >

- | | |
|-----------------|--------------------|
| I. 서론 | Ⅲ. 대학 및 전문학교도서관 현황 |
| Ⅱ.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 1. 대학도서관 |
| 1. 고등교육정책 | 2. 전문학교도서관 |
| 2. 대학 및 전문학교 현황 | Ⅳ. 결론 및 제언 |

초 록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대학과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이 대학과 전문학교에 있었던 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부속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도서관과 보성전문학교도서관이며, 나머지 도서관은 계 또는 과 단위의 부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독립된 건물을 사용한 도서관은 경성고등상업학교 도서관과 보성전문학교도서관, 송실전문학교도서관이었고 나머지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은 공용건물을 사용하였다. 직원수는 경성제국대학부속 도서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도서관은 1명에서 4명 사이의 직원으로 운영하였다.

주제어: 일제강점기 대학도서관, 일제강점기 전문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tuation of the Korea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and Bosung College Library were subsidiary agencies and the other libraries were a section or a department. Keijo Commercial High College Library, Bosung College Library and Soongsil College Library had separate building, and the other college libraries shared a building with other sections or departments in the college.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had the largest staff and the other libraries had between one and four staff members.

Key Words: University Library in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College Library in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cademic Library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KRF-2006-351-H0002).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hschung@cu.ac.kr)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wuhaha@chol.com)

• 접수일: 2007년 8월 25일 • 최초심사일: 2007년 8월 3일 • 최종심사일: 2007년 9월 21일

I. 서론

도서관은 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것은 이용자가 정보를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 최종목적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이러한 역할은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은 조직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도서관은 모기관(母機關)에 부속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은 조직 중에서 대표적인 것에 학교가 있으며, 학교 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은 다른 교육기관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정보요구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해 훨씬 더 큰 필요성을 가지게 하였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은 부속기관이면서도 캠퍼스 내에서 물리적 위치와 그 중요성에서 중심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대학이 출현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단 한곳만 있었으며, 이 외에 공·사립 전문학교(專門學校)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학과 전문학교는 해방이후 지금의 여러 대학으로 연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학에 부속된 도서관 역시 일제 강점기에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대학도서관은 인적·물적인 규모와 역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대학도서관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대학과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이 대학과 전문학교에 있었던 도서관에 대해서 당시의 현황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유일하게 대학인가를 받은 경성제국대학과 이 외에 비록 총독부의 대학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학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학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었던 전문학교¹⁾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당시 대학과 전문학교에 설치된 도서관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인 것으로만 찾아볼 수 있어, 일제강점기 대학 및 전문학교도서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현황 파악에서 미흡한 점이 이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다.

II.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1. 고등교육정책

1) 韓龍震, “日帝 植民統治下の 大學教育,” 韓國史市民講座, 第8集(1996), p.94.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현대식 고등교육의 기점은 1880년대 이후의 개화기부터 이다. 개화기 고등교육의 초기형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학당’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조정(朝廷)이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의학, 외국어, 각종 산업의 특수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립된 기술학교들이다. 나머지 하나는 보성학교와 같이 뜻있는 한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이다.²⁾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학당들은 차차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선교사들 자신이 College라고 부를 만큼 고등한 학문을 가르치게 되었다.³⁾ 그리고 이 시기에 정부가 설립한 신식전문학교교육은 일반적인 교양교육이었던 전통교육과는 달리 전통교육을 통한 인격수련의 바탕위에 특수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가나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이었다.⁴⁾ 한국 조정에 의해 설치되었던 고등교육기관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제의 제도개편에 의해 계속 관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존치되었다.⁵⁾ 그리고 사립학교 역시 일제의 제도에 따라 전문학교로 발전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개화기의 현대식 고등교육은 1910년을 기점으로 일제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고등교육은 일제에 의한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에 따라 통제되었다. 조선교육령은 모두 네 번에 걸쳐 공포되었는데, 그 연도는 1911년, 1922년, 1938년, 1943년이다.

제1차 조선교육령(1911)이 시행되었던 시기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한국 국민의 민족역량이 배양되어 저항할 것을 우려한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억압되었다. 이로 인해 강점 이전에 우리나라에 설립되었던 기존의 고등교육기관들을 폐쇄시키거나 낮은 수준으로 격하시켰다.⁶⁾ 그러나 1915년에는 중등보통교육의 보급과 민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으며,⁷⁾ 새로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에 의거하여 사립고등교육기관을 탄압하면서, 관립고등교육기관을 육성하였다. 이로 인해 사립전문학교들은 ‘전문학교’라는 이름을 박탈당하고 새로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었으며, 관립고등교육기관은 개편하여 강화되었다.⁸⁾

제2차 조선교육령(1922)은 3·1운동의 영향으로 무단통치에 의한 우민화정책을 포기하고 문화통치방식에 의한 동화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공포된 것이다.⁹⁾ 개정된 조선교육령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문학교와 대학을 두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대학교육이

2) 金國煥, 日帝植民地下 高等教育政策에 關한 一研究(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中等教育行政專攻, 1977), pp.20-21.

3) *Ibid.*, p.21.

4) 金基奭, “開化期の 新式 高等教育,” 韓國史市民講座, 第8集(1996), pp.72-92.

5) 金英宇, “開化期の 高等教育 제도: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變遷사(1),” 大學教育, 第44號(1990. 3), p.64.

6) 韓龍震, *op. cit.*, p.95.

7) 정재철, “한국에서의 일제식민지주의 고등교육정책사 연구,” 중앙교육사학회 논문집, 창간호(1995. 9), pp.3-4.

8) 韓龍震, *op. cit.*, p.96.

9) *Ibid.*, p.97.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이것은 3·1운동 이후 일어난 한국인에 의한 조선민립대학설치운동에 자극을 받아 만든 것에 불과하였다.¹⁰⁾ 이 개정된 조선교육령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관·사립 전문학교는 그대로 존속되거나 증설되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인 1938년에 공포되었으며, 이 교육령에는 당시 한국을 병참기지화하려는 정책이 반영되었다. 즉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자유로운 학문 연구와 교수를 통제하고 대륙침략을 위해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 고등교육기관의 특징은 이공계 전문학교의 설치가 많았는데, 이는 전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¹¹⁾

제4차 조선교육령(1943)은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공포된 것으로, 전시 비상조치 정책이 고등교육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고등교육은 이공계 고등교육을 강화하고, 문과계 교육내용을 전쟁수행에 알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여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여자전문학교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¹²⁾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각 시기별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개정된 조선교육령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교육령의 교육방침은 식민지 통치방식에 따라 인재양성의 고등교육이 아니라 식민통치에 필요한 하급관리나 단순 노동자의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억제되었으며, 관(官)주도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2. 대학 및 전문학교 현황

이 절에서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전문학교의 현황을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전문학교가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설립된 대학은 없었으며, 그나마 1910년 이전에 있던 전문학교들조차도 격하되었던 시기이다. 이 당시에 새로 설립된 전문학교는 경성공업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등이 있으며, 전문학교의 이름을 박탈당한 학교는 보성법률상업학교이다. 폐교된 학교로는 관립외국어학교, 대동전문학교, 경신학교 대학과 등이다. 그리고 이름이 변경된 학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관립경성의학교← 제중원),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원농림학교← 농상공학교← 상공학교), 경성전문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교) 등이 있다.

10) 孫仁鍊 著, 韓國近代教育史: 1885-1945(서울: 延世大 出版部, 1971), p.172.

11) 정재철, *op. cit.*, pp.20-22.

12) *Ibid.*, p.28.

제2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은 우리나라 유일의 대학이었으며 또한 일제강점기 유일의 관립(官立)대학이었다. 이 시기에 새로이 설립된 전문학교는 대구의학전문학교, 평양의학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가 있다. 이 시기에 이름이 변경된 학교는 보성전문학교(← 보성법률상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송실전문학교(← 송실학당), 중앙불교전문학교(← 불교전수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이화학당),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전문학교)가 있다.

제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었던 시기는 전쟁준비를 위한 이공계 전문학교의 설치가 많았던 기간으로 대동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부산수산고등수산학교가 신설되었다. 이 외에 신설된 전문학교로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숙명여자전문학교, 명륜전문학교 등이 있다. 그리고 송실전문학교가 폐교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된 시기는 전시비상체제로 이공계 전문학교의 강화와 인문계 전문학교의 정비로 변화가 많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새로 신설된 학교는 대동공업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숙명여자전문학교, 명륜전문학교이다. 이름이 변경된 학교는 경성척식경제전문(← 보성전문학교), 혜화전문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아사히의학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연합전문학교), 이화여자청년연성소지도자양성과(← 이화여자전문학교), 숙명여자청년연성소지도자양성과(← 숙명여자전문학교)이다. 경성법학교와 경성고등상업학교는 통합되어 경성경제전문학교가 되었다.

지금까지 조선교육령시행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강점기 대학 및 전문학교 현황을 표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일제강점기 대학 및 전문학교 현황*

		개화기 (1880-1910)	제1차 조선교육령시행기 (1910-1922)	제2차 조선교육령시행기 (1922-1938)	제3차 조선교육령시행기 -----(1938-1943)----	제4차 조선교육령시행기 -----(1943-1945)---->
대학	관립			경성제국대학(1924)		
전문 학교	관립	제중원(1885) → 경성의 학교(1899)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 강습소(1910) → 경성의학 전문학교(1916)			
		외국어학교(1895)	폐교(1911)			
		상공학교(1899) → 농상공 학교(1904) → 수원농림학 교(1906)	수원농림전문학교 (1918)	수원고등농림학교 (1922)		
		경성법학교(1909)	경성전수학교(1911) → 경성전문학교(1916)	경성법학전문학교 (1922)		경성경제전문학교 (1944: 통합)**>
			경성공업전문학교 (1916)	경성고등공업학교 (1922)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3호)

전문 학교		동양협회전문학교 (1918: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 (1922: 관립)		경성경제전문학교 (1944: 통합)**	
				경성광산전문학교 (1939)		
				부산고등수산학교 (1941)		
	공립			대구의학전문학교 (1923)		
				평양의학전문학교 (1923)		
	사립	송실학당(1901)		송실전문학교(1925)	폐교(1939)	
		보성전문학교(1905)	보성법률상업학교 (1915)	보성전문학교(1922)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 (1944)
		명진학교(1906) → 불교사 법학교(1910, 同年 휴교)	불교고등강숙(1914, 同年 폐교) → 중앙학립(1915)	휴교(1922) → 불교전수학 교(1928) → 중앙불교전문 학교(1930)		해화전문학교(1940) → 폐쇄(1944)
		대동전문학교(1908)	폐교(1916)			
		이화학당(1908)		이화학자전문학교 (1925)		이화학자청년연성소지 도자양성과(1943)
			연희전문학교(1917)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 (1944)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 학교(1917)			아사히(旭)의학전문학 교(1942)
				경성치과전문학교 (1929)		
				경성약학전문학교 (1930)		
					대동공업전문학교 (1938)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1938)	
					숙명여자전문학교 (1939)	숙명여자청년연성소지 도자양성과(1943)
					명륜전문학교(1942)	폐쇄(1944)

* 鄭在哲, “日帝下の 高等教育,” 韓國教育問題研究論文集, 第5集(1989), p.106의 표와 기타 자료를 참조하여 재편.

**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고등상업학교가 경성경제전문학교로 통합.

Ⅲ. 대학 및 전문학교도서관 현황

1. 경성제국대학교 도서관

일제강점기 최초이며 유일의 관립(官立)대학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은

1922년 2월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이 개정되어 1924년 2월 경성제국대학 관제(官制)가 공포되었으며, 1926년 4월 1일 사무분장규정(事務分掌規程)이 제정되면서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은 1926년(大正15) 5월에 본관 가건물 안에 개설되었으며,¹³⁾ 초대관장으로는 1926년 4월 20일 小倉進平이 임명되었고, 1926년 8월 16일 초대사서관으로 寺澤智了가 임명되었다.¹⁴⁾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건물은 1926년(大正15)에 도서관(298평) 일부가 준공되었다.¹⁵⁾ 이후 1930년(昭和5) 6월에 법문학부연구실과 서고가 함께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로 된 2층 건물을 준공하였다. 도서관 1층에는 수부(受付), 휴게실, 사무실, 관장실, 사서관실, 서고, 가서고(假書庫)로 사용하였고, 2층은 서고, 가(假)신문열람실, 열람실, 가(假)잡지실 등이 있었다. 이 건물의 면적은 1,491여평으로 1층과 2층 모두 도서관과 법문학부연구실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도서관은 사무실, 열람실 등이 519여 평, 서고가 392평이었다.¹⁶⁾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의 건물은 1933년(昭和8)의 경성제국대학건물배치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도서관건물은 계획상 미완공 된 일부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건물은 1941년(昭和16)의 경성제국대학건물배치도에도 여전히 미완공 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도서관이 완성되어야 할 부지에 정원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성제국대학의 의학부는 별도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나,¹⁷⁾ 의학부의 건물배치도를 보면 독립된 도서관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¹⁸⁾ 별도의 건물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의 직원은 1927년 당시 관장 1명과 사서관 1명, 사서 2명으로 구성되었고,¹⁹⁾ 이후 1933년 도서관장 이하 전임 사서관 1명, 전임사서 4명, 촉탁 3명으로 구성되었다. 1941년에는 직원수는 촉탁이 1명 증가하였다. 사서관은 부속도서관의 도서기록과 열람관련 사무를 담당하였고, 사서는 도서기록의 정리보존 및 열람관련 사무를 수행하였다.²⁰⁾ 1933년과 1941년의 직원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은 <표 2>에서 제시된 사서관 이하 직원들을 여섯 개의 계(係: 근무계, 수입계, 목록계, 함가(函架)계, 대출계, 서고계)로 나눈 것으로 보아,²¹⁾ 각 계는 한 두 명의 인원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閱覽案内(京城: [發行年未詳]), p.1.

14) 朴熙永, “韓國 高等教育機關圖書館略史,” 도서관, 제103호(1966. 3), p.20.

15) 京城帝國大學建築概要,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6(서울: 大學書院, 1990), pp.173-174.

16)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op. cit.*, p.1.

17)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서울大學校 圖書館 五十年史, 1946-1996(서울: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1996), p.18.

18) 서울大學校醫科大學史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醫科大學史: 1885-1978(서울: 서울大學校醫科大學史編纂委員會, 1978), p.83.

19) 서울大學校 法科大學同窓會,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百年史: 1885-1995(서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同窓會, 2004), pp.160-161.

20) 京城帝國大學一覽: 昭和八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6(서울: 大學書院, 1990), pp.29-30.

21) 尹升鉉, 日帝下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關한 研究: 特히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을 中心으로(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77), pp.21-22.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의 장서는 1933년 8월 현재 365,435책으로, 이 중 화한서(和漢書) 272,671

〈표 2〉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 직원

구 분	1933*	1941**
관 장	船田享二(교수법학사)	船田享二
사서관	吉村定吉(문학사)	近藤音三郎
서 기	近藤音三郎	村中幸人
사 서	關野眞吉 近藤音三郎(兼 서기) 西郎一 上床一男 阿部浩	關野眞吉 上床一男 石野鐵彦(법학사) 有森俊吉 雨宮弘
축 탁	加藤清次 寺島寛 金晋燮	權田煥 豎川九一 金亨奎 金東杓

* 京城帝國大學一覽: 昭和八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6(서울: 大學書院, 1990), pp.160-161.

** 京城帝國大學一覽: 昭和十六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6(서울: 大學書院, 1990), pp.249-250를 참조하여 재편.

책, 양서 92,764책, 신문잡지 1,041종이 소장되어 있었다.²²⁾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은 일제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1945년 기준으로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 33만권을 훨씬 능가하는 55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즉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에서 최고수준의 장서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도서관이었다.²³⁾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은 국내 유일의 대학이었으며, 이에 부합하는 국내 최고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²⁴⁾

2. 전문학교도서관

가.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899년 경성의학교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07년 3월 대한의원 교육부, 1908년 1월 대학의원 의학부, 1909년 대한의원 부속 의학고를 거쳐 일제의 한국강점 후인 1910년 8월에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되었다가 1915년 4월에 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²⁵⁾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사무분장은 1930년(昭和5)에 교무과, 생도과 2과(課)로 구성되었으며, 교무과 아래에는 교무계, 서무계, 회계계, 도서계가 있고, 생도과 아래 생도계와 훈육계가 있어 2과 6계의 조직을 갖추고 운영되었다.²⁶⁾ 1940년(昭和15)에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사무분장은 서무계가 과로 승

22)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op. cit.*, p.2.

23)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op. cit.*, p.10.

24)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의 조직, 직원, 예산, 장서구성, 열람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尹升鉉, *op. cit.*,의 논문과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op. cit.*, pp.9-21 참조.

25)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五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9(서울: 大學書院, 1990), pp.1-5.

26) *Ibid.*, pp.66-69.

격되어 3과 6계로 변경되었으나, 도서계는 변함없이 교무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도서계의 업무는 도서출납보관과 도서실 및 열람실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였다.²⁷⁾ 이것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에는 도서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도서실과 열람실을 각각 둔 것을 알 수 있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도서실은 직원과 생도에 대해 도서의 열람과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한번에 3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었다.²⁸⁾ 도서관직원은 1930년에는 도서촉탁직원 1명(濱田耕太郎)만이 있었으나,²⁹⁾ 1940년에는 도서계주임 1명(飯島滋次郎: 兼 교수)과 사무원 2명(今村理, 豊田永漢)이 있었다.³⁰⁾ 이러한 직원의 증가로 보아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도서실이 10년 사이에 지대한 성장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06년 농상공학교가 각기 분리됨과 동시에 수원농림학교로 개칭되었다. 일제의 강점 후인 1910년에 조선총독부농림학교로 개칭한 후, 1918년 3월에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되었고 이후 1922년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되었다.³¹⁾

수원고등농림학교는 도서실이 있었으나, 이 도서실의 개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도서실 담당자가 도서과장이었는데, 이 도서과장으로 있던 山林漚이 1913년 취직하여³²⁾ 1922년부터 1945년까지 도서과장으로 봉직한 것으로 보아,³³⁾ 최소한 수원고등농림학교 도서실은 1922년 즈음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한다.

수원고등농림학교 도서실은 교사(校舍) 건물 내에 있었다.³⁴⁾ 이 교사는 총 건평이 460여 평의 목조양식 건물로,³⁵⁾ 1907(明治40)년에 완성되었다.³⁶⁾ 이 건물은 도서실 이외에 보통교실, 강당, 교장실, 사무실, 표본실, 동식물실험실, 화학실험실, 식당 등과 함께 사용되었다. 이 교사는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건물소개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며, 별도의 '본관'의 명칭을 가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도서실은 다른 시설과 함께 본관건물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1년 현재 도서실은 도서과장(山林漚: 兼 교수, 입학사(林學士))의 관할 하에 운영되었고,³⁷⁾

27)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五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9(서울: 大學書院, 1990), pp.83-85.

28) *Ibid.*, p.130.

29)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五年, *op. cit.*, p.122.

30)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五年, *op. cit.*, p.144.

31) 水原高等農林學校要覽: 昭和七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8(서울: 大學書院, 1990), pp.1-2.

32) 서울大學校農科大學, 水原農學七十年(서울: 서울大學校農科大學, 1976), p.48.

33) 서울大學校農科大學, 水原農學八十年(서울: 서울大學校農科大學, 1986), p.341.

34) 水原高等農林學校要覽: 昭和七年, *op. cit.*, p.39.

35) 서울大學校農科大學, *op. cit.*, p.48.

36) 水原高等農林學校要覽: 昭和七年, *op. cit.*, p.1.

37) 水原高等農林學校要覽: 昭和七年, *op. cit.*, p.33.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도서실은 별도의 건물 없이 본관 건물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운영하였고 도서과장은 교수직이 겸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는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가 일제의 한국강점 이후인 1911년 경성전문학교로 개칭된 후 1916년 4월에 전문학교규칙에 의해 전문학교로 개편된 학교이다.³⁸⁾ 경성법학전문학교도서관의 개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26년에 이미 도서계와 도서대출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³⁹⁾ 그 이전에 도서관이 개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교무계, 감독계, 도서계, 서무계, 회계계 모두 5개의 계(係)로 구성되며,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는 도서계에서 담당하였다. 도서계의 주요 업무는 도서구입정리 및 보관, 대출 및 열람, 도서인(圖書印)의 보관, 기타 도서와 관련된 모든 사무이다.⁴⁰⁾ 도서계의 책임자는 도서주임으로 도서주임은 학교장이 임명한 교수직이었으며, 고원(雇員) 1명과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연도별 경성법학전문학교 도서관의 주임과 고원은 <표 3>과 같다.

<표 3> 경성법학전문학교 직원현황

구 분	주 임(主任)	고 원(雇員)
1926	寺川末治郎(교원촉탁)	南澤善
1927	同(교수)	.
1928	同	.
1929	同	太內守衛
1931	五千部章助(교수)	室清太郎
1932	同	同
1933	同	同
1934	同	同
1935	同	宮入軍治
1936	中村義明(교수)	同
1938	同	同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1926~1929, 1931~1936, 1938,” 서울法大百年史資料集(서울: 서울大學校法科大學同窓會, 1987)를 참조하여 재편.

경성법학전문학교 도서관은 2년 동안(1927~1928) 교수직의 주임 혼자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두 명의 직원이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원 수에서 변화 없이 운영된 것으로 보아, 경성법학전문학교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성법학전문학교에는 도서관과 교우회기념도서관이 있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의 도서관은 도서계에서 운영하였으며, 교우회기념도서관은 교우회에서 운영하였다. 그러나 교우회기념도서관을

38)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大正十五年,” 서울法大百年史資料集(서울: 서울大學校法科大學同窓會, 1987), p.192.

39) *Ibid.*, pp.202-203.

40) 京城法學專門學校(京城: 京城法學專門學校, 昭和6), pp.40-42.

위해 학교의 도서관이 학교장이 정한 도서종목의 책을 대출해 주었다. 이 교우회기념도서관은 도서관주임 1명이 관리하였다.

경성법학전문학교교우회는 생도를 통상회원으로, 직원강사를 특별회원으로 두었으며, 교우회기념도서관은 도서관주임 1명이 관리하였다. 교우회원과 동창회원에 대해서 도서의 대출과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도서관주임 1명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도서관주임은 도서계주임이 겸하였다.

라.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는 동양협회에서 여러 사업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동양협회가 1900년에 동경에 세운 동양협회전문학교의 분교로 1907년 출발하였다. 이후 1920년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개편되었다가 1922년 관립으로 전환한 관립전문학교이다.⁴¹⁾ 경성고등상업학교 도서관의 개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20년(大正9)에 도서관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⁴²⁾ 그 이전에 이미 개관하였으며, 독립된 건물이 있었다. 도서관건물은 112평의 1층 벽돌건물로 교실과 인접해 있어 이용의 편리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건물에는 도서관주임실과 사무실, 서고, 도서열람실 등이 있었다.

경성고등상업학교는 교무과, 생도과, 도서과, 서무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각 과는 주임과 과원으로 구성되었다. 주임은 교수 및 조교수와 서기 중 학교장이 임명하였다. 도서관은 이 도서과에서 관할하였고, 도서과의 주임은 교수직이 담당하였다. 1938년 당시 도서관직원은 모두 4명으로, 도서과 주임은 新木正之介(교수)이며 과원은 及川完(조교수), 藤用勝一(조교수 겸 서기), 伊藤三次(고원(雇員))이다.⁴³⁾ 경성고등상업학교 도서관은 독립된 건물과 도서관직원 4명 중 3명이 교수이거나 교수를 겸한 것은 당시 경성고등상업학교에서 도서관의 비중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 대구의학전문학교

1924년(大正13) 개교한 대구의학전문학교는 도서실이 있었으나, 그 개관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33년(昭和8) 4월 20일 도서취급규정을 제정하였고 학교 교수 중 도서위원(교수용 島正亮)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며,⁴⁴⁾ 이 즈음에 도서실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구의학전문학교의 도서실은 당분간 교장실로 충당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⁴⁵⁾ 독립된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학전문학교의 도서위원은 교수 중 교장이 임명하였는데, 교수용도서(教授用圖書)⁴⁶⁾의

41) 京城高等商業學教(京城: 京城高等商業學教, 昭和13), pp.3-4.

42) *Ibid.*, p.5.

43) *Ibid.*, p.67.

44) 大邱醫學專門學校諸規程輯覽,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9(서울: 大學書院, 1990), p.13.

45) *Ibid.*, p.104.

46) 당시 대구의학전문학교도서실은 도서를 교수용도서와 사무용도서로 구분하였다.

정리보관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였다. 1935년 당시 대구의학전문학교의 업무분장에는 서무계, 교무계, 생도계, 회계계가 있었고, 학교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무주임이 있었다. 도서위원은 업무분장에서 어느 계(係)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도서의 구입하거나 기증받는 단계의 업무는 사무주임이 하였고 다음 단계를 도서위원이 인계받아 도서실에서 도서대장에 등록하고 도서번호를 부여하고 서가에 배열하고 열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⁴⁷⁾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대구의학전문학교의 도서실은 도서의 구입은 학교전체의 사무를 감독하는 사무주임에 의하였고, 구입 이후의 업무처리는 도서주임에 의해서 수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 보성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보성전문학교로 출발하였으며,⁴⁸⁾ 일제강점 이후인 1915년에는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되었고, 1922년 보성전문학교로 다시 개교하였다.⁴⁹⁾ 이후 보성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4년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⁵⁰⁾

보성전문학교 도서관의 개관연도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1904년(光武8) 교과서 및 참고서 삼만 여종을 구입하여 일본에서 귀국한 이용익(李容翊)이 1906년(光武10) 교사(校舍)를 이전하면서 보성사(普成社)를 부설하여 교수용(教授用)도서를 출판하였고, 이와 함께 보성관(普成館)을 두어 참고서 삼만 여부를 소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¹⁾ 이 기록으로 보아 보성관이 당시 보성전문학교의 도서관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25년 당시 보성전문학교는 서무부, 경리부, 학예부, 체육부의 네 개의 부로 조직되었으며, 학예부가 도서출판 및 보관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였다.⁵²⁾ 그러나 1935년 보성전문학교는 개교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은 기부금으로 도서관을 착공하여 1937년 석조(石造) 3층(석탑 5층) 1동(棟) 총면적 943평으로 된 건물을 준공하여 개관하였다.⁵³⁾ 도서관이 개관한 1937년부터 보성전문학교의 사무분장에 부속도서관이 있으며,⁵⁴⁾ 이후 부속기관으로 도서관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축된 도서관건물은 보성전문학교에서 본관(1,144평)에 버금할 정도의 규모로, 당시 보성전문학교 건물은 본관과 도서관 그리고 기관실과 숙직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던 부속사(附屬舍) 2동(32평, 22평)만이 있어,⁵⁵⁾ 당시 보성전문학교가 도서관에 기울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47) 大邱醫學專門學校諸規程輯覽, *op. cit.*, p.104.

48) 高麗大學校 90年史編纂委員會, 高麗大學校 90年史: 1905-1995(서울: 高麗大 出版部, 1995), p.61.

49) 高麗大學校 70年史編纂室, 高麗大學校 70年誌(서울: 高麗大 出版部, 1976), pp.67-77.

50) 金英宇, *op. cit.*, p.63.

51) 普成專門學校一覽: 大正十四年三月,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50(서울: 大學書院, 1990), pp.1-2

52) *Ibid.*, p.39

53) 李昌教, “全國大學圖書館巡禮: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篇,” 국회도서관보, 제3권, 제3호(1966. 4), pp.88-89.

54) 普成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二年度(京城: 普成專門學校, 1937), p.48.

55) *Ibid.*, p.117.

도서관에는 세 종류의 열람실(통상열람실, 특별열람실, 신문열람실)과 교수 및 강사, 연구생을 위한 연구실, 서고, 진열실이 있었다. 초대도서관장은 손진태(孫晋泰: 교수)이며 직원은 홍순태(洪淳太), 윤택중(尹宅重)이 있었고,⁵⁶⁾ 이후 직원은 4명(홍순태, 안종덕(安鍾德), 최위중(崔衛鍾), 이호제(李昊濟))으로 증가하였다.⁵⁷⁾

사. 이화여자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는 1886년 이화학당으로부터 시작하여 1925년 이화여자전문학교로 발족하였다.⁵⁸⁾ 이후 1943년 이화여자청년연성소지도자양성과로 개편되었다.⁵⁹⁾

이화여자전문학교도서관은 1923년 정동(貞洞) Frey Hall에 장서 16,000권을 가진 도서실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수에 비례하여 장서수도 증가하여 1935년에 신촌교사의 Pheiffer Hall로 옮겼다.⁶⁰⁾ Pheiffer Hall은 이화여자전문학교의 본관으로, 1935년에 완공된 지하 1층, 지상 3층, 총건평 1,295평의 석조고딕건물이었다. 6.25전쟁 이전까지는 전교생이 수업을 받았던 곳으로, 여러 학과가 함께 사용한 건물이다.⁶¹⁾ 이화여자전문학교도서관의 장서수는 1933년 3,721권, 1935년 8,000권⁶²⁾으로 창립부터 10여년 간 2배의 장서증가량을 보인데 반해 1933년과 1935년 사이에 비약적인 장서량의 증가가 있었다.

이화여자전문학교는 크게 학교업무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서실은 교무행정 에 속하였으며, 도서부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1937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도서실은 도서부장 1명(金永義)과 직원 1명(白菊喜)이 운영하였다. 당시 도서실의 규모와 장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5,000엔(円)의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었다.⁶³⁾

아.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에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으로 개교하였으며,⁶⁴⁾ 1917년 4월에 사립연희전문학교로 설립되었다.⁶⁵⁾ 연희전문학교는 1944년 소위 '전시교육비상조치요강'에 의해 폐교되었으며, 폐교 한달 전에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로 허가 받았다.⁶⁶⁾

56) *Ibid.*, pp.62-63.

57) 普成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五年度([京城]: 普成專門學校, 1940), pp.59-60.

58) 鄭在哲, “日帝下の 高等教育,” 韓國教育問題研究論文集, 第5集(1989), pp.78-79.

59) 金英宇, *op. cit.*, p.64.

60) 梨花八十年史編纂委員會, 梨花八十年史(서울: 梨花女大 出版部, 1967), pp.542-543.

61)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자료집(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4), pp.827-828.

62) 金容成, 日帝下 私立專門學校圖書館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成均館大 大學院, 圖書館學科, 1981), p.40.

63)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昭和十二年([京城]: [梨花女子專門學校], 昭和12 [1937]), p.10.

64) 延世大學校百年史編纂委員會, 延世大學校百年史: 1885-1985, 卷1(서울: 延世大 出版部, 1985), pp.60-61.

65) *Ibid.*, p.144.

66) 나일성 편저, 서양 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서울: 연세대 출판부, 2004), p.183.

연희전문학교의 도서관은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모태가 되는데, 1915년부터 설립자겸 제1대 교장인 H.G. Underwood의 기증도서로 시작되었다. 1924년에 Underwood Hall이 준공되자 3층에 도서관을 마련하였다.⁶⁷⁾ 이 열람실은 Underwood Hall의 3층 중앙에 있었으며, 서편에 사무실이 있었다.⁶⁸⁾ 연희전문학교도서관은 독립된 도서관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⁶⁹⁾ 도안(圖案)까지 마련하였으며,⁷⁰⁾ 1957년에 도서관은 독립된 건물로 이전하였다.⁷¹⁾

연희전문학교도서관은 Underwood의 기증도서 230책을 기초로 시작되었으며, 1940년 당시 도서관은 도서관과 연구실에 소장된 책을 합하여 6만여권을 소장하였다.⁷²⁾ 연희전문학교도서관의 장서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연희전문학교도서관 장서수

연 도	장서수(책)	비 고
1915	657	
1919	1,344	
1924	5,797	
1928	6,591	
1933	24,798	
1935	44,633	
1937*	51,888	
1940	54,036	문과연구실: 2,437
		상과연구실: 2,910
		이과연구실: 1,118

延禧專門學校 延禧同窓會, 母校創立二十五週年記念(京城: 延禧專門學校 延禧同窓會, 昭和15[1940]), p.15와
*: 延禧專門學校, 延禧專門學校狀況報告書(京城: 延禧專門學校, 昭和12[1937]), 9를 참조하여 재편.

연희전문학교도서관의 장서수는 4, 5년을 간격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1928년과 1935년 사이에 거의 4배에 가깝게 증가하여 당시 도서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940년 당시 도서관은 도서관장 1명(이묘묵(李卯默: 兼 학감))과 도서관원 1명(신한철(申垈澈) 도서역(圖書役) 2명(김병서(金炳瑞), 한상희(韓相姬))에 의해 운영되었다.⁷³⁾

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67) “全國大學圖書館巡禮: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篇,” 국회도서관보 제3권, 제2호(1966. 3), p.40.

68) Chosun Christian College, *Chosun Christian College bulletin: 1933-1934*(Seoul, Korea: Chosun Cristian College, 1933), pp.35-37.

69) *Ibid.*, p.37.

70) 延禧專門學校 延禧同窓會, 母校創立二十五週年記念(京城: 延禧專門學校 延禧同窓會, 昭和15[1940]), 卷末.

71) “全國大學圖書館巡禮: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篇,” *op. cit.*, p.42.

72) 延禧專門學校 延禧同窓會, *op. cit.*, p.15.

73) *Ibid.*, pp.13.14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1899년 설립된 제중원의학교를 모태로 하고 1909년 미국 북장로 교파의 해외선교부에 의해 설립된 세브란스의학교를 개편한 학교이다. 일제 강점 후인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변경되었다가, 1917년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⁷⁴⁾ 이후 1942년 아사히(旭)의학전문학교로 개칭하였다.⁷⁵⁾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도서관의 창립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1923년부터 도서관리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⁷⁶⁾ 그 이전에 이미 도서관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에는 교무과, 도서과, 서무과가 있었으며, 도서관은 도서과(圖書課)에서 운영하였고 주간(主幹)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이 주간은 학교전체 직제 중에서 중위에 속하였고,⁷⁸⁾ 주간 아래에는 도서과 서기가 있었다.⁷⁹⁾ 도서과는 도서구입, 정리 및 보관에 관련된 사항과 도서대출 및 열람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였다.⁸⁰⁾ 도서과 주간은 도서구입과 관련된 업무를 서무과장에게 회부하여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하는 업무와 매년 1회 도서의 정기검열과 수시검열을 허가하였다.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도서관은 도서를 크게 전문도서와 일반도서로 구분하였다.⁸¹⁾

차. 경성약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는 1925년 설립된 조선총독부지정조선약학교로 시작하여, 1930년 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⁸²⁾ 경성약학전문학교는 도서실을 두었는데, 이 도서실규정이 1940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⁸³⁾ 그 이전에 이미 도서실을 개설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교무분장규정에 따르면 당시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조직은 교무과, 생도과, 서무과, 회계과, 도서과, 기계약품과, 약원(藥園)과의 7개 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과에는 주임 1명과 과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⁸⁴⁾

도서관을 담당한 과는 도서과로, 도서과의 주요 업무는 ① 도서 및 잡지의 구입, 관리, 보관에

74) 鄭在哲, “日帝下の 高等教育,” *op. cit.*, p.66.

75) 金英宇, *op. cit.*, p.64.

76) 延世大學校百年史編纂委員會, *op. cit.*, p.114.

77) 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五年四月現在,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50(서울: 大學書院, 1990), p.51.

78)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직제는 교장, 부교장, 교두(教頭), 생도감(生徒監), 부속병원장, 부속병원부원장, 교수, 조교수, 서무과장, 주간, 약국장, 조수, 의원(醫員), 서기, 약제원, 기수(岐手), 간호부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Ibid.*, pp.49-50).

79) *Ibid.*, p.78

80) *Ibid.*, p.54

81) *Ibid.*, pp.78-79.

82) 金英宇, *op. cit.*, p.60.

83) 京城藥學專門學校一覽, 昭和十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50(서울: 大學書院, 1990), p.57.

84) *Ibid.*, p.65.

관계된 사항, ② 도서 및 잡지열람의 열람과 도서 대출 관련 사항, ③ 도서열람실 관리와 관련된 사항, ④ 도서목록 및 통계와 관련된 사항, ⑤ 도서관에 속한 문서 기안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 ⑥ 기타 도서와 관련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⁸⁵⁾

이 외에도 혜화전문학교가 불교중앙학림으로 인가 받을 당시 각 사찰 및 유지들로부터 기증받은 불교서적으로 도서관업무를 시작한 이후, 3·1운동의 참여를 이유로 강제폐교당하면서 도서관 역시 폐관되었다. 그러나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재교(再校)됨에 따라 도서관이 재발족 되었고, 이후 혜화전문학교가 다시 폐교되면서 도서관 운영은 또 다시 마비되었으나, 장서를 봉은사(奉恩寺)로 옮겨 도서보존과 차람(借覽)업무를 그대로 계속하였다.⁸⁶⁾ 그리고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에 목조2층, 건평 62평의 도서관이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다.⁸⁷⁾ 또한 숙명여자전문학교는 1938년 설립 당시 도서실을 발족하였다.⁸⁸⁾

지금까지 살펴본 일제강점기 대학 및 전문학교의 도서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85) *Ibid.*, pp.69-70.

86) 東國七十年史編纂委員會, 東國七十年史(서울: 東國大 出版部, 1976), pp.358-359.

87) 西村綠也, 朝鮮教育大觀: 中,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1(서울: 大學書院, 1990), p.7.

88) 趙昇東, “全國大學圖書館巡禮: 淑明女子大學校圖書館篇,” 국회도서관보, 제3권, 제10호(1966. 11), p.73.

〈표 5〉 일제강점기 고등교육기관 도서관 현황

구분	학교명	도서관담당부서	담당자(명)	건물	
대학	관립	경성제국대학교	부속도서관	1941: 관장(1), 사서관(1), 서기(1), 사서(5), 촉탁(4)	법학부연구실과 공용 하는 2층 콘크리트 건물
	관립	경성의학전문학교	교무과 도서계	1940: 주임(1), 사무원(2)	.
수원고등농림학교		도서과	1931: 도서과장(1)	본관에 해당하는 교사(校舍)공용	
경성법학전문학교		도서계	1926-1938: 주임(1) 고원(1)	.	
경성고등상업학교		도서과	1938: 주임(1) 과원(2) 고원(1)	1층 벽돌건물(112평)	
전문학교	공립	대구의학전문학교	도서실*	1933: 주임(1)	교장실 공용
	사립	보성전문학교	1937년 이전: 학예부 1937년 이후부속도서관	1937-: 관장(1), 서기(4)	석조(石造) 3층 건물(석탑 5층)
		이화여자전문학교	도서부	1937: 부장(1), 직원(1)	본관건물 공용
		연희전문학교	도서관	1940: 도서관장(1), 도서관원(1), 도서역(2)	Underwood Hall(3층) 공용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도서과	1940: 주간, 서기	.
		경성약학전문학교	도서과	1940: 도서주임(1), 과원(약간명)	.
		송실전문학교	도서실*	.	목조 2층건물
		해화전문학교	도서관*	.	.
		숙명여자전문학교	도서실*	.	.

*은 도서관담당부서가 아닌 명칭임.

IV. 결론 및 제언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대학 및 전문학교들은 도서관을 부속기관으로서 또는 하나의 과 또는 실로써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도서관과 보성전문학교도서관이며, 나머지 도서관은 계 또는 과 단위의 부서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독립된 건물을 사용한 도서관은 경성고등상업학교 도서관과 보성전문학교도서관, 송실전문학교 도서관이었고 나머지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은 공용건물을 사용하였다. 직원수는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도서관은 1명에서 4명 사이의 직원으로 운영되었다. 도서관장 또는 과장, 주임 직위를 가진 담당자들이 도서관을 총괄하였는데 대부분 교수직이 겸임하였다.

현재 국내 도서관계에서 시설, 장서, 직원 면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대학도서관들이 일제강점기 대학 및 전문학교의 도서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에 반해, 그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인 기록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조차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당시 도서관의 존재조차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단편적으로나마 밝혀진 이들 도서관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전담직원의 배치 그리고 명문화된 업무분장 및 도서관규정 등을 가지고 운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의 운영이 학교 전체의 조직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자체적으로도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었음을 알려준다. 현재까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학 및 전문도서관들에 대한 기록들이 특정 소수 대학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그 외의 전문학교도서관들에 대해 미약하나마 그 존재와 상황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현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아직 보완할 점이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며 추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단편적인 사실은 부족하나마 현재 대학도서관의 출발점을 좀 더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高麗大學校 70年史編纂室. 高麗大學校 70年誌. 서울: 高麗大 出版部, 1976.
- 高麗大學校 90年史編纂委員會. 高麗大學校 90年史: 1905-1995. 서울: 高麗大 出版部, 1995.
- 金國煥. 日帝植民地下 高等教育政策에 關한 一研究.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中等教育行政專攻, 1977.
- 金基奭. “開化期の 新式 高等教育.” 韓國史市民講座, 第8集(1996), pp.72-93.
- 金英宇. “開化期の 高等教育 제도: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變遷사(1).” 大學教育, 第44號(1990. 3), pp.56-67.
- 金容成. 日帝下 私立專門學校圖書館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 大學院, 圖書館學科, 1981.
- 나일성 편저. 서양 과학의 도입과 연희전문학교. 서울: 연세대 출판부, 2004.
- 東國七十年史編纂委員會. 東國七十年史. 서울: 東國大 出版部, 1976.
- 朴熙永. “韓國 高等教育機關圖書館略史.” 도서관, 제103호(1966. 3), pp.18-23.
- 서울大學校農科大學. 水原農學七十年. 서울: 서울大學校農科大學, 1976.
- 서울大學校農科大學. 水原農學八十年. 서울: 서울大學校農科大學, 1986.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同窓會.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百年史: 1885-1995. 서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同窓會, 2004.
- 서울大學校醫科大學史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醫科大學史: 1885-1978. 서울: 서울大學校醫科大學史編纂委員會, 1978.
-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서울大學校 圖書館 五十年史: 1946-1996. 서울: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1996.

- 孫仁銖 著. 韓國近代教育史: 1885-1945. 서울: 延世大 出版部, 1971.
- 延世大學校百年史編纂委員會. 延世大學校百年史: 1885-1985, 卷1. 서울: 延世大 出版部, 1985.
- 尹升鉉. 日帝下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關한 研究: 特히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77.
- 李昌教. “全國大學圖書館巡禮: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篇.” 國회도서관보, 제3권, 제3호(1966. 4), pp.88-92, 99.
- 梨花八十年史編纂委員會. 梨花八十年史. 서울: 梨花女大 出版部, 1967.
-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자료집.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4.
- “全國大學圖書館巡禮: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篇,” 國회도서관보, 제3권, 제2호(1966. 3), pp.40-47.
- 鄭在哲. “日帝下의 高等教育.” 韓國教育問題研究論文集, 第5集(1989), pp.37-109.
- _____. “한국에서의 일제식민지주의 고등교육정책사 연구.” 중앙교육사학회 논문집, 창간호(1995. 9), pp.3-34.
- 趙昇東. “全國大學圖書館巡禮: 淑明女子大學校圖書館篇.” 國회도서관보, 제3권, 제10호(1966. 11), pp.73-75.
- 韓龍震. “日帝 植民統治下의 大學教育,” 韓國史市民講座, 第8集(1996), pp.94-112.
- 京城高等商業學教. 京城: 京城高等商業學教, 昭和13.
- “京城法學專門學校一覽: 大正十五年.” 서울法大百年史資料集. 서울: 서울大學校法科大學同窓會, 1987.
- 京城法學專門學校. 京城: 京城法學專門學校, 昭和6.
- 京城藥學專門學校一覽, 昭和十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50. 서울: 大學書院, 1990.
-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五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9. 서울: 大學書院, 1990.
-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五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9. 서울: 大學書院, 1990.
- 京城帝國大學建築概要.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6. 서울: 大學書院, 1990.
-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閱覽案内. 京城: [發行年未詳].
- 京城帝國大學一覽: 昭和八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6. 서울: 大學書院, 1990.
- 大邱醫學專門學校諸規程輯覽.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9. 서울: 大學書院, 1990.
- 普成專門學校一覽: 大正十四年三月.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50. 서울: 大學書院, 1990.
- 普成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二年度. 京城: 普成專門學校, 1937.
- 普成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五年度. [京城]: 普成專門學校, 1940.
- 西村綠也. 朝鮮教育大觀: 中.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1. 서울: 大學書院, 1990.
- 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十五年四月現在.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50.

서울: 大學書院, 1990.

水原高等農林學校要覽: 昭和七年.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48. 서울: 大學書院, 1990.
延禧專門學校 延禧同窓會. 母校創立二十五週年記念. 京城: 延禧專門學校 延禧同窓會, 昭和
15[1940].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 昭和十二年. [京城]: [梨花女子專門學校]. 昭和12 [1937].
Chosun Cristian College. *Chosun Christian College bulletin: 1933-1934*. Seoul, Korea: Chosun
Cristian College, 1933.